

보고 싶다! 할리우드 간 강동원, 빌보드 톱10 방탄소년단

가상으로 꾸민 '2017 연예계 희망의 10대 뉴스'

힘겨웠던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드라마 '응답하라 1988'과 '태양의 후예', 영화 '부산행'과 '검사외전', 걸그룹 트와이스와 여자친구로 눈과 귀가 즐거웠지만 참담한 사건사고도 많았다. 뜨거운 포부로 박철 정유년 새해, 스포츠동아가 '희망의 10대 뉴스'로 새로운 한 해 연예계의 행복을 기원한다. 가상의 뉴스이지만, 실제로도 이런 기사를 꼭 쓰고 싶다는 열망이기도 하다.



강동원

1. 한한령(限韓令)이 환한령(歡韓令)으로

지난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을 계기로 중국은 한국 연예인의 현지 공연을 제한하고, 한국 연예인이 출연한 드라마 제작 및 방영을 불허하는 등 암묵적인 규제로 국내 엔터테인먼트업계를 어렵게 한다는 의혹을 샀다. 하지만 새해 한중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정치와 문화는 별개"라는 인식 속에서 중국은 "양질의 한류 콘텐츠를 환영한다"고 발표하며 '환한령(한류환영)'을 선포했다. 이에 경쟁력 있는 한류 상품들이 다시 현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인터넷 공간이라는 '음지'에서 한류를 소비하던 중국인들도 당당히 이를 즐기고 있다.

2. '공개 연애' 커플, 속속 결혼



김국진·강수지 커플

연예계 대표 '스타 커플'이 잇따라 결실을 맺었다. 가장 연장자 커플인 김국진·강수지를 비롯해 비·김태희, 조정석·거미, 김소연·이상우, 설리·최자 커플 등이 속속 결혼 소식을 알렸다. 이들은 공개 연인을 선언하면서부터 팬들에게 '빨리 결혼했으면 하는 스타 커플'로 꼽혔다. 이들 커플들은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위해 내조와 외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화려하고 요란한 웨딩 대신 가족과 친지들만 초대해 조용한 '스몰웨딩'을 치러 눈길을 모았다. 팬들은 이들의 결혼 발표에 '2세' 소식을 기다리는 등 축하 인사를 보냈다.

3. '군함도'의 성공과 파장



영화 '군함도'

예상대로 대성공이다. 황정민, 송중기, 소지섭 주연 영화 '군함도'가 여류 극장가를 강타해 1000만 관객을 넘어섰다. 연출자 류승완 감독으로서는 2015년 '베테랑'에 이은 두 번째 성공. 영화는 단순히 흥행 성과에만 머물지 않는다.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주요 매체들은 영화 '군함도'를 계기로 일제가 무고한 식민지 국민을 강제로 데려가 학대와 징용을 일삼았던 히시마(군함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히시마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4. 강동원, 첫 마블 히어로 합류

강동원이 할리우드로 향했다. 그것도 마블스튜디오가 제작하는 히어로무비의 주연이다. 1~2년 전부터 "일본과 미국 등 해외시장"을 향한 진출 계획을 밝힌 강동원이 2017년 시작과 함께 자신의 꿈을 이뤘다. 강동원은 지난해 말 마블스튜디오 제작진과 극비 미팅을 갖고, 올해 새로 제작되는 영화의 주연을 따냈다. 그의 출중한 영어 실력에 할리우드 제작진이 높은 점수를 줬다는 후문이다. 다만 영화 제목과 배역은 할리우드 제작진과 계약에 따라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5. 방탄소년단, 빌보드 200 10위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이 2017년 발표한 새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200 10위에 올랐다. 한국가수 최초로. 작년 10월 2집 '윙스'로 빌보드 200에서 26위를 기록하며 한국가수 최고 순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은 1년 만에 다시 새 앨범으로 기록을 경신, 세계 정복이 눈앞에 있음은 만방에 알렸다. 이와 더불어 영국 UK차트에서는 3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했다. 빌보드 200은 빌보드 앨범차트, 싱글차트인 핫100과 함께 양대 메인차트에 해당한다.

6. 송강호, 드라마 첫 출연



송강호

이번엔 송강호다. 송강호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안방극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1991년 연극 '동승'으로 연기를 시작한 후 스크린에서만 활동했던 그가 26년 만에 드라마에 첫 출연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해 한국영화 처음으로 22편의 주연작을 통해 누적관객 1억명 동원에 성공한 그가 안방극장에서 발휘할 흥행 파워에 벌써부터 시선이 쏠린다. 또 이영애, 고소영이 10여년 만에 복귀해 화제를 모은 데 이어 송강호의 첫 드라마 출연 소식으로 연예계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7. 돌아온 온사마



백종준

백종준이 6년 만의 활동 재계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10월 아들을 얻고 1년간 아내 박수진과 육아에 집중했던 그가 자신의 무대로 돌아갈 준비에 한창이다. 올해 그의 최고 히트작 '겨울연가'가 국내 방송 15주년을 맞으면서 일본에서도 각종 행사가 열

린다. 원조 한류스타 '온사마'의 방문 소식이 현지 팬들은 벌써부터 떠들썩하다. 팬들을 향해 "가족"이라 부르는 그의 변치 않는 파스칼에 팬들도 오랜 시간 그를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 귀국 후 배웅준은 본격적으로 복귀 과정을 밟는다. 출연 계약서 사인만 남겨놓은 상태이다.

8. 악플러 처벌 강화, 악플 종식

끊임없는 소송에도 사라지지 않던 악플이 올해부터는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지방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실상은 수심, 수백만원 벌금형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중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악명성에 숨어 자행되던 인신공격, '아니면 말고' 식의 투머를 퍼뜨리는 행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9. 유승호, '군주'로 한류 새 주역



유승호

지난해 송중기와 박보검이 있었다면 올해는 유승호였다. 2017년은 1993년생으로 댄퍼인 그의 해였던 만큼 국내는 물론 아시아권까지 제 무대처를 휘저었다. 더욱 젊어진 남성미에 더 이상 귀여운 '남동생'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다. 5월17일 첫 방송한 MBC 수목드라마 '군주-가면의 주인'은 그의 활약에 힘입어 두 자릿수 시청률로 시작해 30%를 돌파하며 20위로 막을 내렸다. 중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북미, 유럽 등에 판권을 수출하며 한류 사극 붐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10. 신수원 감독, 여성감독 첫 칸 경쟁부문



신수원 감독의 영화 '유리정원'

한국영화의 쾌거다. 신수원 감독의 영화 '유리정원'이 5월 개막하는 제70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관객을 만난다. 한국 여성감독이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되기는 신수원 감독이 처음이다. 2015년 칸 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서 영화 '마돈나'를 소개한 신수원 감독은 당시 영화제 측으로부터 "다음 작품으로 분명히 경쟁부문에 초청받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예언은 3년 만에 이뤄졌다. 이번 영화에서 과감한 변신을 시도한 배우 문근영은 처음으로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게 됐다.

엔터테인먼트부

2017년 희망의 연예계 기원 사자성어

강구연월(康衢煙月)

= '변화한 거리(강구)에 달빛이 연기에 은은하게(연월) 비치는 모습'

'강구연월'(康衢煙月).

스포츠동아가 2017년 희망의 연예계를 기원하며 선정된 사자성어다. 새해 연예계 안팎의 모두가 웃는 얼굴로 저마다 돋보이는 성과를 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본래는 '변화한 거리(강구)에 달빛이 연기

에 은은하게(연월) 비치는 모습'이라는 뜻이다. 중국 전국시대 '열자'의 '중니' 편에 담긴 말로, 요임금이 나라를 다스린 지 50년이 되던 해에 민심을 살펴볼려 변화한 거리에 나갔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모두가 임금의 지극한 덕인데,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지만

임금이 정하신 대로 살아간다면"은 어린이들의 노래를 듣고 기뻐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해 태평성대의 평화로운 풍경을 비유하는 말이다.

지난해에는 일부 연예인의 충격적인 성추문, 음주운전, 불륜, 탈루 등 사건사고와 논란

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연예계에도 분노와 허탈감을 안겼다. 새해에는 연예계를 알뜰하게 하는 이런 사건사고가 사라지길 기원하며 연예계 '평화로운 풍경'을 기대한다.

김원경 기자 yummy@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소찬휘·로이 혼인신고...올해 봄 웨딩마치



가수 소찬휘(본명 김경희·45)가 6살 연하의 밴드 스트릿댄스 멤버 로이(본명 김경웅·39)와 올해 봄 웨딩마치를 올린다. 한 달 전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됐다. 1일 두 사람의 소속사 와이드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트

릿댄스가 1월16일부터 해외투어를 시작해 3월 소찬휘의 전국투어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날짜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3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두 사람은 스트릿댄스가 소찬휘의 소속사로 합류하면서 가까워졌다. 스트릿댄스는 2015년 KBS 2TV 오디션프로그램 '톱밴드 시즌3'에 출연해 톱3에 오른 바 있다.

한석규, 5년 만에 연기대상 수상

한석규, 송중기·송혜교, 이종석이 2016 지상파 방송 3사 연기대상의 주인공이 됐다. 한석규는 12월31일 열린 SBS 'SAF 연기대상'에서 '남만닥터 김사부'로 대상을 수상했다. 2011년 '뿌리 깊은 나무' 이후 5년 만에 최고 자리에 올랐다. 같은 날 열린 KBS '연기대상'에서는 '태양의 후예'의 송중기와 송혜교가 공동으로 대상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두 사람은 베스트커플상도 받았다. 30일 MBC '연기대상'은 '더블유'의 이종석이 시청자 투표 100% 방식을 통해 영광을 안았다.

이휘재, 시상식 개인사 질문 '비매너' 논란

방송인 이휘재가 12월31일 SBS 'SAF 연기대상'에서 참석자들의 개인사를 과도하게 질문하는 등 '비(非)매너'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1일 사과했다. 이휘재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모든 게 제 과오이고 불찰이니 일이 몇 개라도 드릴 말씀 없다.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방송에서 좀 재미있게 해보자 했던 욕심이 과했던 것 같다"며 "제 언행으로 불편하셨을 성동일, 조정석, 아이유를 비롯해 시청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중심을 잡아 진행하도록 노

력하겠다"고 했다.

비스트 다섯 멤버 홀로서기 이후 첫 팬미팅



그룹 비스트의 다섯 멤버 윤두준·용준형·이광·양요섭·손승운이 홀로서기 이후 첫 공식 행사로 팬미팅을 열었다. 어라운드어스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비스트는 12월31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777 파티'라는 제목으로 7000여 팬들과 만났다. '777 파티'는 멤버 5명과 팬클럽

뷰티, 소속사를 합한 '7', 데뷔 7주년, 2017년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7'을 조합한 제목이다. 소속사 측은 1일 "이들은 팬미팅을 시작으로 올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손지창, 미국서 전기차 급발진 소송 제기

연기자 손지창이 미국에서 전기차업체를 상대로 급발진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살고 있는 손지창은 1일 SNS를 통해 "지난해 9월 테슬라X에 둘째 아들을 태우고 차고로 진입하는 순간 행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차고 벽을 뚫고 거실로 쳐박혔다"고 밝혔다. 이어 "말로만 들던 급발진이었다"면서 "테슬라가 차의 결함을 찾기보다 제 실수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편집 | 정홍운 기자 sadzoo@donga.com